

‘InKorean’ 기능 보완으로 안정된 프로그램 공급

편집·조판 프로그램 부문의 S/W 시장이 PDF(전자 문서 변환장치), InDesign CS 등의 획기적인 콘텐츠 출시로 전문·분업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IBM과 Mac 시장의 수익구조도 점차 그 파이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Mac OS X을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내 S/W 시장이 올 상반기에는 ‘한글 지원’과 ‘호환성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이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한 후 활동 영역을 정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인큐브테크(QuarkXPress)와 어도비(Illustrator, Photoshop)에서 공급하고 있는 많은 편집 프로그램들이 접근이 쉬운 그림 명령어를 바탕으로 유저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 출시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IBM과 Mac에서의 처리 속도와 서체 가변 폭의 향상 등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선보이고 있다. 머지 않아 OTF(Open TrueType Font)의 출시와 정착으로 인해 S/W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일 보할 것이라는 것 또한 업계의 중론이다. 이러한 시장을 눈앞에 두고 현재 어도비와 솔루션 파트너를 구축하고 편집·조판 프로그램인 InDesign CS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지난해 6월, 세계 최고의 금융활자본인 ‘직지’를 계승하고 세계 정보문화의 중심

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주)직지소프트(대표 이중화)다.

다각적인 사업망

현재 이 업체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문 중 하나는 바로 ‘전문 레이아웃 및 디자인 프로그램의 새로운 표준’을 기치로 내걸고 보급하고 있는 Adobe ‘InDesign CS’, Photoshop, Illustrator, Acrobat 등과의 밀접한 호환으로 신속한 페이지 제작과 안정적인 출력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총 직원은 25명. 하드웨어 개발은 1980년 8월에 설립돼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세일포트마가 담당하고 이를 ‘InKorean’이라는 한글 플러그인에 접목시켜 하나의 제품으로 출시하는 것은 직지소프트가 맡고 있다. 통합형이지만 세분화된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홍기익 이사는 이에 대해 “폰트 즉 서체는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를 상품성을 지닌 S/W로 만들어 가는 것은 직지소프트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끊임없는 서체(SM) 개발과 글꼴 디자인을 통해 전자출판 시스템의 시발점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이중화 사장을 주축으로 마케팅·기술지원·S/W 개발·폰트·재경 부문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분야의 특성

에 맞게 효율적인 인력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조직을 바탕으로 이 업체는 한 직원이 소화하는 업무 영역이 소속 부서에 국한돼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 지원 범위를 숙지해야 하고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환경에 대한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만 원활한 진척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폰트 디자인팀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재 출시되고 있는 OTF에 대한 시장성과 사용 빈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디자인이 추구하는 글꼴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S/W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 업체의 의사 소통은 수평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향식 전달 방식이 아닌 실무진들의 다양한 의견이 현실적인 대안점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탄탄한 밑거름이 바탕

하지만 자회사인 (주)직지소프트가 외부에 대한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보다는 탄탄한 조직망을 구축하게 된 배경에는 세일포트마라는 탄탄한 밑거름이 있었다. 불특정 다수를 공략하는 타깃보다는 국내 S/W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공략 대상의 폭을 줄여 나간 것이 주된 성장 엔진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어도비 솔루션 파트너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주)직지소프트 직원들

로 등록을 마치고 InDesign CS 플러그인 'InKorean' 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기까지는 바로 1980년 사진재료 부문 사업을 개시한 세일포트마가 든든하게 후방을 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6년 스웨덴 CEA 사로부터 필름 인화지 등을 통한 국내 판로 개척을 시작으로 1987년 제판용 카메라(덴마크), 1992년 캡스턴 필름 출력기·애플컴퓨터·평판스캐너(미국), 1993년 립 S/W(독일) 등 국적과 업종에 관여치 않는 대리점 계약으로 전자출판 시장의 다각적인 기초를 다지게 됐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스캐너 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판단, 미국의 Techexpoter사로부터 드럼 평판 데스크탑 스캐너에 대한 국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시기적인 호황 콘텐츠와 이에 대한 전망을 철저히 분석하고 시장에 진입했다. '전자출판의 활성화'를 추구한 정부의 정책 기조도 세일포트마의 이 같은 사업망에 불씨를 제공했다. 이는 전자 출판에 대한 민·관·학 차원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동년 이 업체는 장비뿐만 아니라 기획 편집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장비가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기획 편집 분야의 S/W가 충분한 모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DK&A사로부터 하리꼬미 S/W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프레스 분야에도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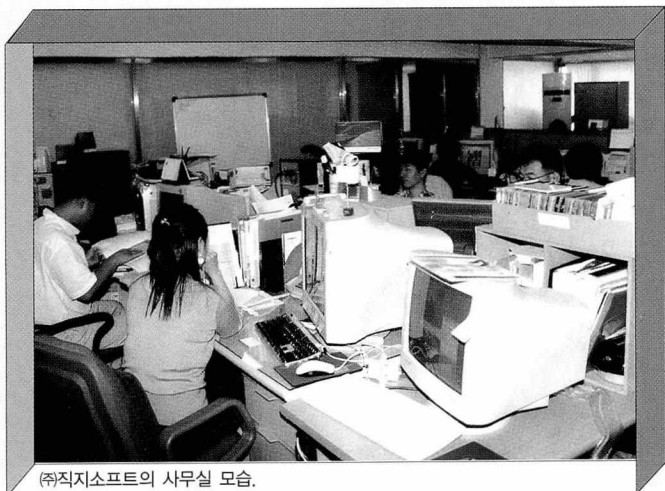
출하게 된다. 이는 또 벨기에로부터 그래픽어 부분의 S/W를 국내 유저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컬러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다양한 부문의 대리점 사업과 신 개념의 콘텐츠 확보는 결국 한정된 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국내 인쇄·출판 시장의 획기적인 발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통합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직지소프트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서체 사업부문 인수도 이와 비슷한 시기였다.

시대 흐름에 편승한 마케팅

이처럼 탄탄하게 이어온 계보의 정점은 지난해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인쇄산업전(KIPES 2004). 이 업체의 주력 소프트웨어인 InDesign CS는 솔루션 구축에 대한 설명·출품회를 실시하면서 편집·조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유저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 동안 고질적인 것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서체 가변폭의 확대와 한글 지원 등이 플러그인 방식으로 지원되는 'InKorean'으로 인해 호환성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창조적인 맞춤 CS(Creative Suite) 즉 소비자들의 입맛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다양한 전문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창조적인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 지난해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인쇄산업전(KIPES 2004). 이 업체의 주력 소프트웨어인 InDesign CS는 솔루션 구축에 대한 설명·출품회를 실시하면서 편집·조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유저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주)직지소프트의 사무실 모습.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흐름은 바로 Photoshop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였다. 최근 '뽀샵질'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킬 만큼 급성장세를 보였으며 일반 기업체뿐만 아니라 신개념의 전자문서 변환장치로 떠오른 PDF, Quark xpress 4.1k의 안정제도 InDesign CS의 편집 환경이 주는 무한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했다. '하나의 편집 콘텐츠에서 모든 것이 운용될 수 있게 하자'라는 국내 S/W 시장의 흐름이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킨 요인이 된 것이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

이 업체는 올 하반기인 7월을 기점으로 체계적인 로드쇼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연령대, 윈도우와 Mac의 환경, 가격 경쟁력 확보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 중이다. InDesign CS의 주인은 바로 사용자라는 기본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Apple Computer와 다우데이터시스템, 인성디지털 등 굵직굵직한 공급사들을 공식 파트너로 지정하고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저변 확대가 이뤄질 수 있게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판매 협력업체는 휴먼그래픽스와 맥 나라 등을 비롯해 충무로에 Adobe InDesign CS의 공인출력소만 12개업체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에만 마케팅의 주력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

니다. 홈페이지(www.indesignforum.com)를 새롭게 개편하고 최근 새롭게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Mac OS X 환경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서체 지원, 관련 링크의 재정비를 통해 유저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들의 집합체가 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단지 제품을 출

시하고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한 홍보가 아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불편한 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출시되는 제품들에 대한 시스템상의 오류와 장점도 동시에 파악하고 있다. 또 이와 병행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프로그램의 용이한 접근 방법과 다양한

미.니.인.터.뷰. | 흥기의 영업이사

통합 솔루션 구축은 '필수'



"하나의 콘텐츠로는 이제 S/W 시장에서 유저들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이죠." 흥기(43) (주)직지소프트 영업이사는 SM 서체 개발부터 InDesign CS의 배급에 이르기까지 쌓아온 10여년의 노하우에 대해 이렇게 표명했다. 현재 그는 PS·TTF·CID·OTF 솔루션의 개발과 PDF온라인 교정, InDesign 한글플러그인 'InKorean' 개발에 참여하는 등 편집·조판에서 결정적인 키워드를 쥐고 있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국내 최초의 2byte 한글 P/S SM 서체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답게 캘리디자인 서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통합 솔루션의 구축에 대해 그는 "물론 OTF 서체를 비롯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가장 큰 관건은 일련의 프리프레스 과정을 꿰뚫고 있는 업체만이 우수한 기술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양평이 고향인 그는 2년전인 지난 2003년에 직지소프트에 입사해 소프트·하드웨어의 구축과 특수약물 입력기 등 수많은 개발 분야에 참여한 바 있다.

패치의 적절한 활용, 세계 시장의 판도 분석을 게재해 매끄러운 S/W의 보급과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의 콘텐츠에 대한 D/B를 유·무형의 마케팅 그릇에 담아 내고 있는 것이다. 안중찬 마케팅장은 이에 대해 "InDesign CS과 관련된 개발 계획은 InKorean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올 가을 출시될 한글 InDesign CS2에서 직지소프트가 보여줄 역량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InDesign CS의 주요 특징

작업시간 절감

Transparency 팔레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Photoshop이나 Illustrator에서 그래픽 요소들의 투명도를 일일이 조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텍스트 넘침 자동 파악 텍스트 프레임은 문자·단어·줄·단락 수와 같은 텍스트 프레임에 관한 모든 정보를 Info 팔레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텍스트 프레임이 연결돼 있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까지 함께 감안해서 보여준다. 즉 텍스트 프레임 내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해 커서를 아이빔 모양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Info 팔레트를 보면 문자나 단어, 줄, 단락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PDF 파일 생성 작업 중인 도큐먼트에 책갈피, 톨오버 버튼, 동영상, 애니메이션, 오디오 파일 등을 배치한 후 Acrobat 6.0(PDF 1.5)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또 이를 교육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즉 사용 용도의 범위를 출판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시킨 획기적인 기능이다.

디스플레이 퀄리티 조절 선택한 오브젝트별로 화면에 보일 때의 퀄리티를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다. 속도에 부담을 주는 그래픽 요소만 따로 선택해 화면에 보일 때의 퀄리티를 낮출 수도 있다. 선택한 그래픽 요소를 'High Quality Display'로 설정했을 때 'Typical Display'보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중첩 스타일 중첩 스타일이란 단락 스타일 내에 하나 이상의 문자 스타일을 적용하는 텍스트 스타일 중 하나로 문장이나 단어, 문자, 숫자, 특수 문자(긴 공백, 탭, 강제 줄 바꿈) 등을 기준으로 단락 내에 적용할 수 있다. 스타일이 적용돼 있는 단락의 일부분만 스타일을 다르게 지정하려면 상당히 번거롭다.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첩 스타일을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다국어 편집 시 유용한 레이어 레이어 기능은 기본이다. Layers 팔레트를 적극 활용하면 여러 요소들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국어 편집을 하는 경우 기본 바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텍스트만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쉽게 바꿀 수도 있다. 또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는 도큐먼트를 Adobe PDF 1.5 레이어 포맷으로 내보내면 Adobe Acrobat 6.0 Professional에서 이러한 레이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출 수도 있다.

정확한 인쇄를 위한 PDF/X 지원 작업하고 있는 도큐먼트를 Adobe Acrobat 6.0(PDF 1.5), Acrobat 5.0(PDF 1.4), Acrobat 4.0(PDF 1.3)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Adobe PDF 파일로 직접 내보낼 수 있다. 특히 ISO 표준인 PDF/X-1a 및 PDF/X-3 포맷도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인쇄가 가능하게 됐다. PDF/X-1a는 CMYK 인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고 PDF/X-3는 색상관리 워크플로우에 대한 지원을 더욱 향상시켰다.

슬러그 영역 Document Setup 대화 상자에서는 현재 작업 중인 문서의 슬러그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슬러그 영역은 일반적으로 광고회사에서 고객·프로젝트 이름, 인쇄 날짜, 승인 사인, 인쇄 지침과 같은 기타 세부 정보를 페이지 가장자리에 표시할 때 많이 사용된다. 슬러그 영역에 프로젝트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해당 도큐먼트를 검토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장흥일 기자)



Apple Computer

와 다우데이터시스템, 인성디지털 등 끊임없이 공급사들을 공식 파트너로 지정하고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지면 확대가 이뤄질 수 있게 전력을 쏟아 붓고 있다.

